

10분간 쏟아진 우박에 곡성·보성·순천 176ha 농작물 피해

과수 낙과 등 131ha · 고추 등 밭작물 45ha 손상

전남도, 오는 16일까지 농가별 정밀조사 실시

전남지역에 6일 오후 내린 비와 갑자기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곡성·보성·순천 등에서 176ha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내륙지역에

전날 오후 8시 기준 곡성 52.5mm, 보성 11.1mm, 순천 11mm 등 강한 비와 함께 우박이 내렸다.
우박은 이날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2~10분 동안 곡성·보성·순천 등 전남 등

부권 일부 지역에서만 내렸으며, 크기는 직경 0.5~1cm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내린 우박으로 인해 7일 오후 1시 현재 3개 시군의 농작물 176ha(곡성 100ha, 보성 70ha, 순천 6ha)가 피해를 입었다.
이중 과수는 매실, 사과, 배, 블루베리 등 131ha가 낙과되고 흠집이 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또 토란, 고추, 참깨 등 밭작물 45ha가 잎이 손상되고 쓰러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의 경우 6일 오후 5시부터 5시30

분 사이 곡성읍·오곡면·삼기면·석곡면 등 4개 읍면에 5~10분 동안 지름 0.5~1.0cm 우박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230여 농가가 매실·사과·배·블루베리·토란·옥수수·고추·참깨 등 83.6ha의 우박 피해를 입었다.
읍면별로는 △곡성읍 129농가 22.9ha △오곡면 41농가 12ha △삼기면 34농가 19.2ha △석곡면 28농가 27.5ha 등이다. 품목별로는 매실 107농가 53.0ha로 가장 피해가 컸다.

이번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이후 조사과정에서 면적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에서 피해 신고 접수 및 농가별 정밀조사를 6월1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며 "농어업재해대책법 따라 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가능가는 신속한 손해평가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광주 양림동 펥귤마을, '공예특화거리' 재탄생

오래된 가옥 20여 채 '레트로 감성' 리모델링 통해 11개 공방 입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공방들은 섬유, 목공, 도자, 금속 등을 소재로 한 공예품을 관광객이 직접 만들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예를 배우고 싶어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예아카데미 및 어린이 체험프로그램도 선 보일 예정이다.

광주시와 남구는 옛 골목의 추억이 가득한 '양림동 펥귤마을'이 공예특화거리로 재탄생했다고 7일 밝혔다.

공예특화거리는 시와 남구가 주민 의견 수렴,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진한 사업이다.

공예산업 육성 정책과 골목이 갖는 '레트로 감성'을 결합해 오래된 가옥 20여 채를 리모델링해 공예특화거리로 새 단장했다.

지난 5일 개장 기념식은 식전공연, 사업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돌고리풍경 달기, 현장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6·7일에는 공예특화거리 입주공방, 양림동 소재 기업, 지역 공방이 함께하는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공예체험 프로그램, 광주공예명장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새롭게 단장된 공예특화거리에는 11개 공예 공방이 입주해 판매장을 운영하며 체험관, 전시장, MBC 오픈스튜디오

MBC 오픈스튜디오는 라디오 생방송과 유튜브 생중계가 진행돼 관광객들이 생방송을 직접 관람하고 이벤트나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양림동은 근대역사문화의 보고로 기독교 선교문화유산 및 근현대 건축물이 현존하고 김현승·정용성 등 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곳으로 광주의 대표관광지로 주목받아왔다.

버려진 공터에 폐품들을 모아 만들어진 펥귤마을은 외지관광객들의 입소문이 난 광주의 대표 문화관광지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의 핫플레이스인 양림동 펥귤마을이 공예특화거리로 거듭나면서 광주공예산업이 발전하는 터전 마련은 물론 양림동역사문화마을이 가진 풍부한 볼거리와 어우러져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체험형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강진읍 보은산 연꽃단지 새 단장

강진군은 보은산 연꽃단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맞이할 준비에 나섰다.
군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2ha의 연꽃단지 내 생육상대가 불량한 백련에 대한 전면 교체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연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산책로 보수와 함께 야자매트 설치사업을 완료했다.

진드기 매체 'SFTS' 광주·전남 첫 환자 발생

전남 거주 79세 여성...광주보건환경연구원 "야외활동 주의 당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전남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 야외활동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5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관내 병원에서 의뢰된 고열환자 A씨(여·79)의 혈액 유전자검사 결과, SFTS 환자로 4일 최종 판정됐다. 전남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야외활동 중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

인됐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해마다 10~2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도 22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다.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발열성 질환의 발생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중 매달 1회씩 관내 야산, 등산로 인근 숲속, 휴

경지에서 참진드기를 채집해 조사하고 있다. 올해 참진드기 개체수 조사 결과 1월 19마리, 2월 59마리, 3월 160마리, 4월 340마리, 5월 329마리가 채집돼 기온 상승에 따른 개체수가 지속 증가되고 있다.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는 잠복기인 4~15일 후부터 38도 이상의 고열, 구토,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증상을 보인다.

서진중 감염병조사과장은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SFTS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참진드기가 증가하고 있어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 시 진드기가 몸에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